

기획

# 제3의 중핵이 넘어야 할 두 번째 산, '평가방식'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③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 티칭'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크게 3가지로 짚었는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평가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빅문'을 수강중인 A양은 시험을 보러 배정된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시간에 빅문을 듣는 다른 친구들이 해당 교실에 앉아있다.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둘러보다 빅문의 모든 반 수강생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막상 시험지를 받고 풀다보니 당황스런 문제가 하나 둘 보인다.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 것이다. 다행히 A양은 시험공부 중 따로 찾아본 자료로 풀 수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같은 시험을 친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강조까지 했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들려 혼란스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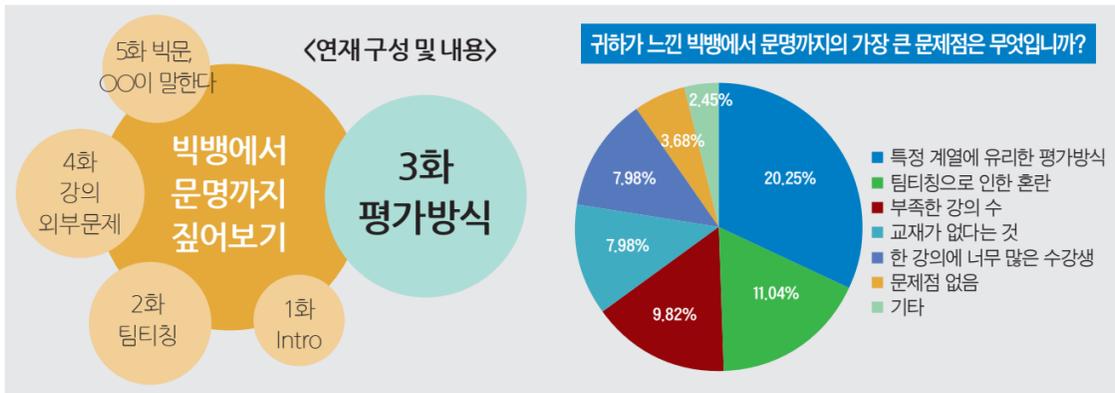
빅문은 지난 해 2학기부터 각각 성적산출의 35%에 해당하는 중간-기말고사를 시험기간 전후 특정 날짜에,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오후 7시 30분부터 빅문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이 같이 시험을 보는 방식을 취해왔다.

다른 강의, 같은 시험 '원래 알던 과학지식' 요한다

시험은 청문관에서 실시되며, 각 반의 학생들은 속한 반과 상관없이 학년별로 시험장소를 재배정 받아 응시한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이며, OMR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수강생이 동일한 내용의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타 중핵과목들과 확연히 다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같은 이름으로 2개 이상의



지난 11일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크라운관에서 '참을 수 없는 과학기술의 가벼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 박예령 기자)



반이 개설된 강의 중 빅문과 같이 수업시간 외에 해당 강의의 모든 학생이 한 번에 시험을 보는 방식을 가진 강의는 '외국인 전용 글쓰기' 뿐이다.

지난 1학과 2학기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실시된 빅문의 평가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빅문이 지금과 같은 시험방식을 택한 것은 지난해 2학기부터다. 지난해 1학기 서울캠에서 처음 빅문 수업이 도입된 때에는 여타 중핵 교양과목과 동일하게 시험기간 내 각 수업시간에 각 반별로 시험을 진행했다.

2학기에 들어 현재의 시험방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빅문을 총괄하는 송재규(화학) 교수는 "지난 1학기 각 반마다 다른 시간대에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시험문제는 각 반마다 달랐지만 첫 번째로 시험 본 학생들

이 문제의 유형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후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시험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세미(물리학 2016) 양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험 시간을 동일하게 시험지는 각 반마다 다르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현(언론정보학 2016) 군은 "빅문의 각 수업에 충실했는지 성취도를 알아보는 평가라기보다 평가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3월 대학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빅문을 수강 완료했다고 답한 응답자 전체 123명 중 32

명(약 25.6%)만이 빅문의 중간-기말고사가 '매우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답했다.(대학주보 제1618호 1.3면, 2017.4.3) 주목할 점은 수강 완료한 시점에 따라, 즉 빅문을 수강한 학기에 따라 반응의 추이가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이다.

평가방식 변경하자 시험만족도 절반으로 '뚝'

지난해 1학기, 다시 말해 평가방식이 바뀌기 전에 수강완료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는 빅문의 중간-기말고사가 '합리적'이거나 '매우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평가방식이 바뀐 이후인 지난해 2학기에 수강완료한 응답자 중에서는 단 20%만이 빅문의 중간-기말고사가 '합리적'이거나

'매우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절반에 달하는 20%p가 하락한 것이다.

바뀐 평가방식이 이번 학기에도 지속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설문 응답자 A씨는 '분반이 돼있는 과목 특성상 PPT 자료가 각 반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정 반 수업에는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불합리하다고 느꼈다'고 답했으며 고나원(경영학 2016) 양도 "시험보기 전부터 분반마다 교수님들이 달라서 걱정이 됐는데 실제 시험에서 배운 내용보다 추가지식을 요구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빅문을 수강한 임세미(물리학 2016) 양 또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아니라 원래 알던 과학지식으로 풀었다"라며 "같은 과(물리학) 친구들도 빅문에서 배운 내용만으론 풀기 힘든 시험이라 문과 친구들이 풀기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빅문 가장 큰 문제점 '특정계열에 유리한 평가방식' 꼽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빅문의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교수들끼리 시험문제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통으로 가르친 내용만 시험에 출제한다"고 답했다. 빅문을 총괄하는 송재규(화학) 교수 역시 "만에 하나 배우지 않은 내용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반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별 상대평가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 설문문에 응답한 B씨는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이공계 학생이 맞출 가능성이 높아 특정계열 학생은 불리하다'고 답했다. 같은 설문에서 '특정계열에 유리한 평가방식'이 빅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기 힘들다.

교육학자 칼프 워프레드 타일러는 '교육평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 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밝히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서울캠 빅문의 평가방식은 이러한 원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될 중핵교과인 만큼 보다 완성도 높은 강의 운영이 필요해보인다.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협정>**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십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 기준 합격자 수시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jp@khu.ac.kr](mailto: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7 Kyung Hee Repertory Dance Project

일시: 2017. 5. 22(월) ~ 25(목) 5pm  
장소: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HU, Seoul

주최: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무용학부 49대학생회 · 문화아이템빅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2017학년도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졸업 작품 발표회

1. 주제: STORE  
2. 일시: 2017.5. 19. (금) 16:00 / 19:00  
3. 장소: 평화의전당 1층 로비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36, Kyunghyehae-ro, Dongdasemun-gu, Seoul, 110-701, Korea

제 37회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졸업패션쇼  
Clothing & Textiles Graduate Fashion Show  
2017.05.19 FRI 4PM / 7PM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2017 Peace Boat Global University

후마니티스 지구대학 프로그램 참여학생 모집

Peace Boat University 목적  
다국적 학생들과 지구촌 문제의 해결방법을 토론하고 선상 프로그램 및 현지 현장학습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인드를 길러내고자 함.

연수일정 2017. 8. 10.(목) ~ 8. 28(월) [19일간: 일본 도쿄 - 미얀마 양곤]  
학점인정 3학점 [기타학점]  
연수비용 1. 프로그램 참가비 : JPY306,800(1인 기준)  
참가비 전액 장학 지원(한화 약 330만원)  
2. 항공료, 선상팀, 항구이용료 및 개인경비는 본인 부담  
3. 모든 참가자들은 비자취득이 요구되며, 비자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지원자격 1. 서울캠 학부 재학생(단, 4학년 2학기 이상 및 외국인 학생 제외)  
2. 영어사용 가능자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20명 이내 (서류심사 및 면접)  
신청기한 2017. 5. 1.(월) ~ 2017. 5. 17.(수) 17:00까지  
제출서류 1. 참가지원서(소정양식) 1부  
2. 계획서(국문) 1부  
3. 성적증명서(국문) 1부  
4. 여권사본 1부

서류제출 후마니티스칼리지 행정실 (청문관 2층)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티스칼리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피스보트' 참고  
서울캠퍼스 후마니티스칼리지 학장